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김 유 만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깊이 새겨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와 승리의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시였습니다.》(《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 단행본 10페이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면모와 그 건설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신것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에는 세계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복잡하고 우리 혁명앞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시련이 들이닥친 가장 엄혹한 시기였다.

엄혹한 시련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면모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국력이 강한 나라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주는 강성국가로 되자면 그것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사상과 정치, 군사와 경제분야에서의 힘이 강해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줄수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모든것이 흥하는

나라이다.

모든것이 흥하는 나라란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커다란 활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이다. 오늘에는 강대한 국력을 자랑하지만 끊임없이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그 미래와 전도가 없는 나라는 모든것이 흥하는 나라라고 볼수 없다. 나라의 전도는 중요하게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 달려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를 말한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한다고 하여도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는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참다운 삶을 누리며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는 나라가 진정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철저히 실현해주는 사회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으로 하여 그 미래는 창창하며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 강한 국력에 의거하여 오늘날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무궁번영하는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면모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므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래일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자면 실제적인 담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실제적인 담보는 선군의 위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을 정립체계화하시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은 혁명의 총대, 혁명군대를 강화하고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며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혁명리론을 밝혀주고있다.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주도적역할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떠맡고 나가야 한다는것은 선군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새로운 혁명리론이다.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사상과 리념은 정치를 통하여 실현되며 정치는 인민대중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정치는 바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정치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됨으로써 인류정치사와 사회주의정치사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

설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신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주체의 운동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객관적환경과 조건도 중요하다. 그러나 객관적환경이 유리하다고 하여 혁명이 저절로 일어나 승리하는것이 아니다.

객관적환경과 조건은 불리하여도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꾸려지면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선군시대 우리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이다.

일찌기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규정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선군혁명대오로 확고히 전변시키시였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주체의 핵심력량이며 주력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선군혁명령도는 최고사령관과 인민군장병들사이의 관계를 뿔해야 뿔수 없는 혼연일체의 관계로 확고히 전변시켰다.

언제나 인민군군인들을 나의 병사, 나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길이 아무리 험해도 다 찾으시고 그들이 바라는것이라면 억만재부를 아낌없이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은 전군을 장군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선군혁명동지대오로 전변시키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주체의 핵심력량으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민대단결의 전

통적미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당의 군민대단결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군민대단결은 단순히 군대와 인민이 서로 돕고 위해주는 관계만이 아니라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이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에서 일치성을 보장한다는것은 그들사이에 공고한 일심단결을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군민대단결은 우리 사회의 밑뿌리로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를 펴서 혁명의 기둥,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인민들이 본받고 따라배우도록 하심으로써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에서 완벽한 일치를 보장하고 군민대단결을 확고히 이룩하게 하시였다.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의 사상, 투쟁기풍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우리 혁명의 주체는 가장 위력한것으로 되였으며 여기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밀고나가는 결정적담보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물질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신것이다.

경제강국은 강성국가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되는것과 함께 경제강국이 되어야만 사회주의강성국가가 완전히 건설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경제력은 국력을 재는 중요한 척도이며 튼튼한 경제력은 강성국가의 물질적 토대를 이룬다.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자기 힘을 믿고 우리의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은 선군의 불길속에서 다져온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강성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미 마련해놓은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길밖에 없다.

자력갱생의 길만이 강성국가의 지름길이며 선군조선의 미래를 담보하는 번영의 길 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찾으시는 단위마다에서 자기 힘을 믿으라고, 자력갱생만이 제일이라고 그럴듯 강렬하게 호소하시였고 자력갱생의 창조물을 보실 때면 그리도 기뻐하시였으며 자그마한 자력갱생의 싹이라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고 온 나라에 거세 찬 불길로 타번지게 하시였던것이다.

자력갱생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열쇠로 틀어쥐고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강자와 약자, 강대국과 약소국이 갈라지게 된다.

새 세기에 들어와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노는 역할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정보산업시대의 로동은 더욱더 지능화되고있으며 현대과학기술에 의하여 물질문화적재부창조에서 일대 비약이 이룩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는 현시대의 중요한 특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과학기술중시로선의 기본요구는 짧은

기간에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것이다.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달려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으로 조국 수호전을 이끄시는 것처럼 어렵고 간고한 조건에서도 과학기술발전이 중지되면 안된다고 하시며 온 나라에 과학중시의 열풍,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지펴주시였다.

과학기술발전을 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건결히 관철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의 자랑인 우리 식의 CNC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한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발전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

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최신과학기술과 결합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고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모든것이 흥하고 번영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어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마련되어있으며 현대적과학기술과 결합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백승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